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성자의 거룩한 영을 따라 아버지만을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성자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 본당 대청소 안내

- 오늘(25일) 미사 후
- 청소용품 지참

♣ 주일학교 미사

- 11월 1일, 주일

♣ 2027 세계 청년대회 참가 안내

- 교구 대회 : 대구대교구 포항(27년 7월 29일~8월 2일, 4박 5일)
- 본 대회 : 27년 8월3일~8월8일, 5박 6일
- 대상 : 16세 이상(2027년 7~8월 기준), 선착순 30명
- 참가비 : 약800유로(항공료 불포함)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카톡 본당 공지방 첨부)하셔서 bundotour@naver.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모임 / 회의

- 청년 회의 : 11월 1일 (주일), 미사 후
- 사목 회의 : 11월 8일 (주일), 미사 후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23.60€ • 교무금 500.00

전례 성가

입당 : 415 (사랑이 없으면)
봉헌 :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성체 : 157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158 (구세주예수 그리스도)
파견 : 345 (미사 끝)

전례 봉사

이번 주일(10월 18일)	다음 주일(11월 1일)
1독서 : 안소현 아녜스	1독서 : 정이한 다윗
2독서 : 박광식 루카	2독서 : 강윤이 스텔라
복 사:강윤아 헬레나/안태리 소화데레사	복 사:변가인 헬레나/안태리 소화데레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김우진 크리스티나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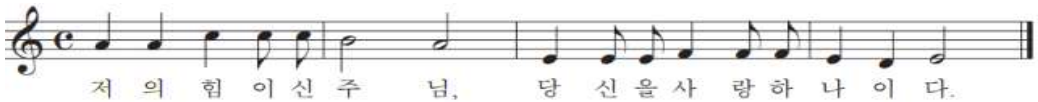
2026년 10월 25일

(녹) 연중 제30주일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1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2,20-2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0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21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22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23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4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25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26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1,5ㄴ-10)
형제 여러분, 5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6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 계신 참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10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34-40)
그때에 34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35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36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39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40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올바르게 판단하고,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3.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굶주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4. 디지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젊은이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디지털 문화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참된 만남과 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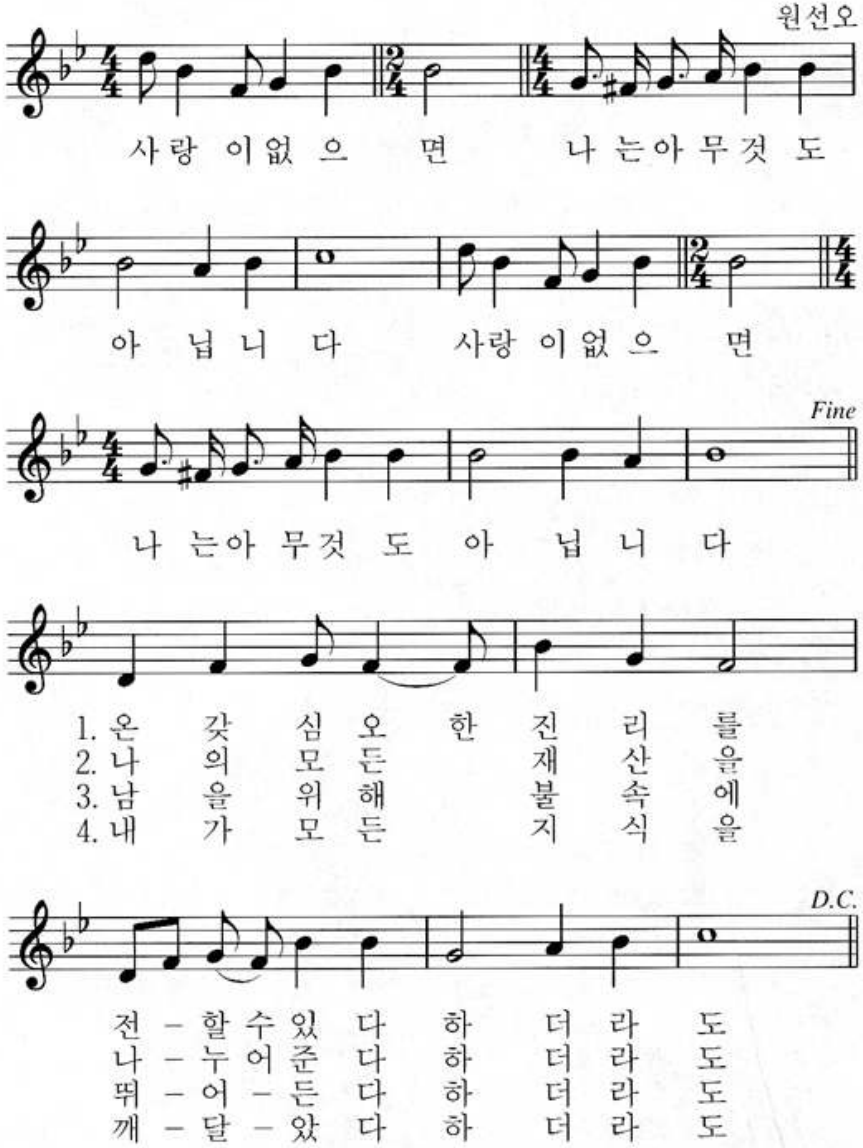
주님,
성체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 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415 사랑이 없으면

연중

(1코린 13)

원선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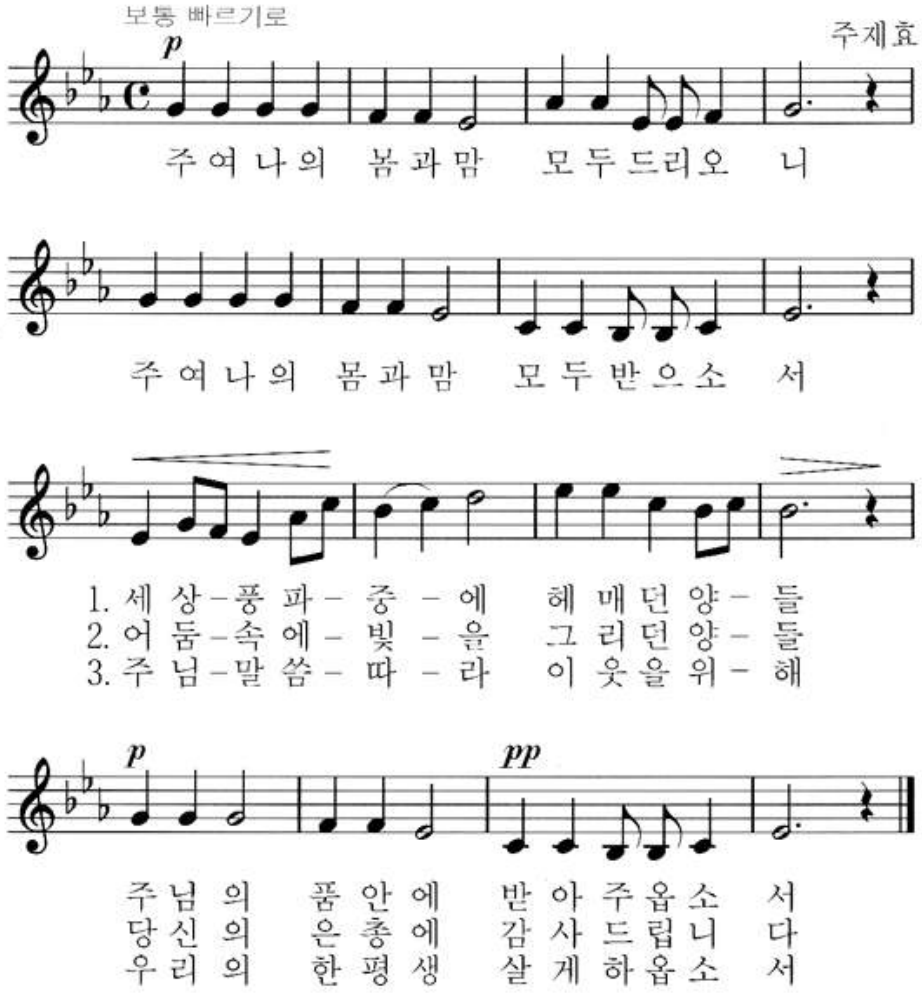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봉헌

보통 빠르기로

주제효



성체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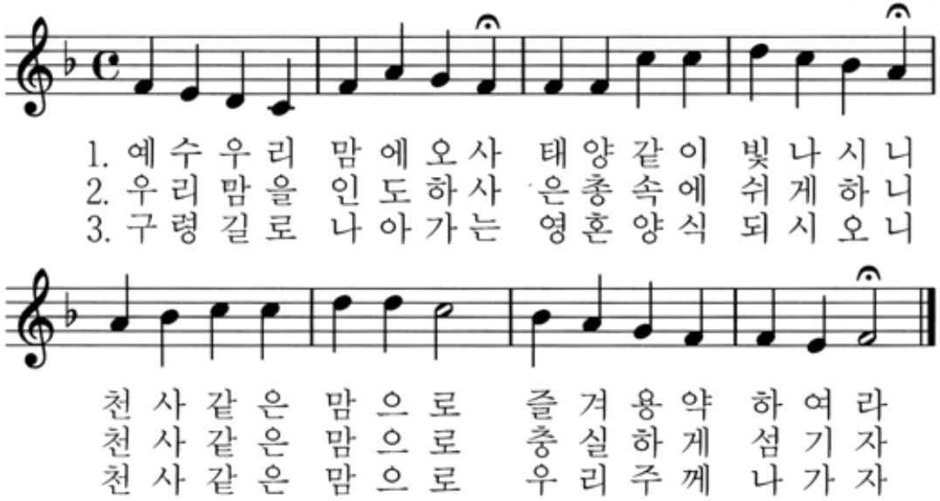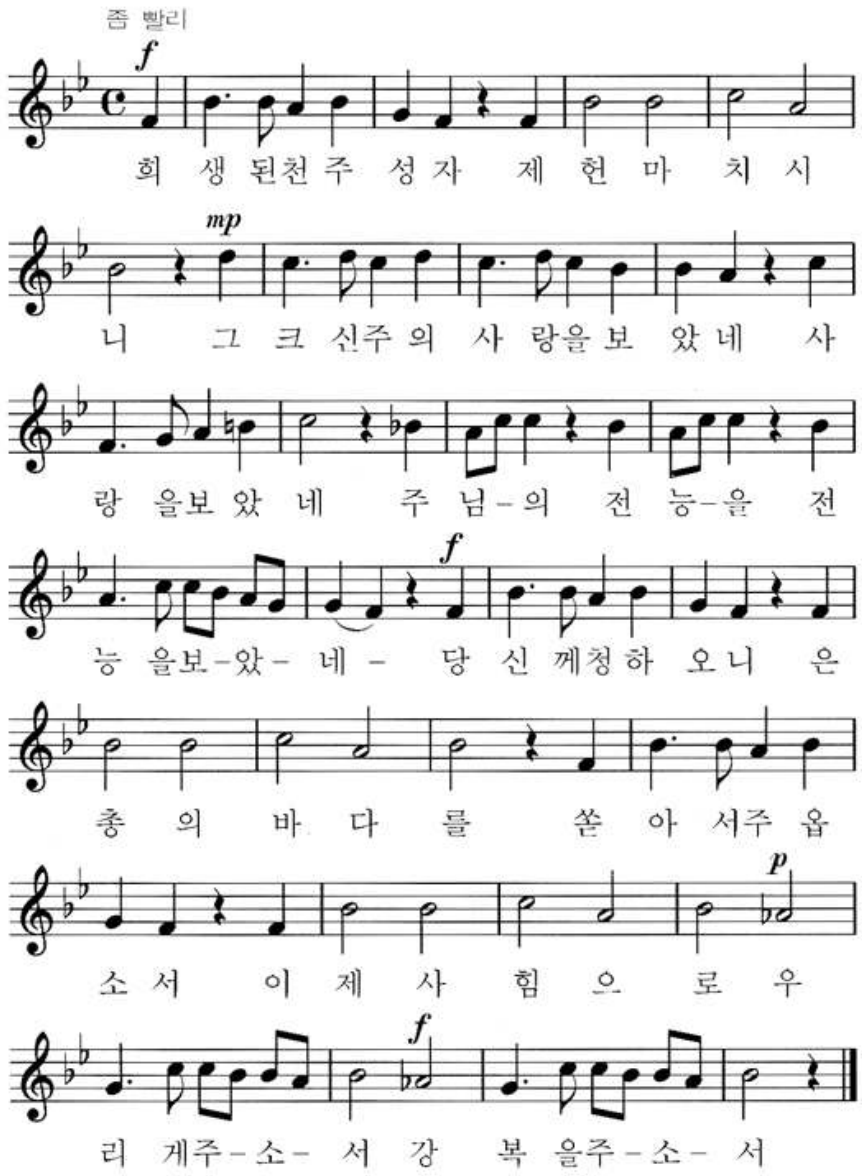
Choral
이문근 편곡



